

# 삼성SDI 006400

## 2Q23 실적 Review, 설명회 Q&A 정리

### 반도체/디스플레이

Analyst 김선우  
02. 6454-4862  
sunwoo.kim@meritz.co.kr

RA 김동관  
02. 6454-4880  
dong-kwan.kim@meritz.co.kr

### 2Q23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에 부합. 하반기 추가적인 실적 개선 예상

삼성SDI는 2Q23 매출액 5.84조원 (+9.1% QoQ, +23.2% YoY), 영업이익 4,502억원 (+19.9% QoQ, +4.9% YoY)의 실적을 기록. 이는 최근 시장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 계절성에 기반해 소형전지 및 전자재료 부문 공히 전분기 대비 외형과 수익성 모두 개선됨. 중대형전지의 경우 P5 비중확대 및 적용 차량들의 출하 증가로 인해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음

하반기의 경우 중대형전지와 전자재료 사업부의 성장이 예상됨. 자동차 전지는 헝가리 라인 신규 라인이 가동되는 가운데, 신규 수주 및 새로운 매출인식에 기반해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자재료 역시 전방 시장의 완만한 회복에 소재 시황의 점진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음. 3Q23 실적의 경우 시장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6,000억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충분히 부합 또는 소폭 상회도 가능할 전망. 향후 추가적인 대형전지 수주 이벤트 및 전자재료 실적 회복이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됨

### 2Q23 실적 사업부 별 주요내용 정리

#### 전지-소형

##### 원형 고출력 제품 판매 확대로 매출 및 수익성 개선

- 원형전지: 전동공구용 전지 수요 회복 지연 불구 장기공급계약 기반으로 주요 고객향 판매 확대.
- 파우치전지: IT 수요 둔화 영향으로 매출 감소
- 46 $\Phi$  전지는 상반기에 고객이 요구하는 목표 성능 조기 확보. 하반기 고객향 샘플 생산 준비

##### 하반기는 EV, E-Bike, E-Scooter 등 M-Mobility향 전지 판매가 성장 견인

- 원형전지: EV용, E-Bike용은 수요 증가로 판매 확대 예상. E-Scooter는 인도 등 신시장에서 BO 발굴 추진 예정. 전동공구용은 시장 수요 회복 지연 불구 하반기 물량 조기 확정. 신규 어플리케이션으로의 판매 확대 추진할 계획
- 파우치전지: 주요 고객향 신제품 진입하여 본격 공급 개시

**전자-중대형**

**P5 배터리 탑재 차량의 판매 호조로 매출 및 이익 증가**

- 자동차전지: P5 배터리를 탑재한 주요 고객 프리미엄 차량의 견조한 판매로 전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및 이익 증가
- ESS: 계절적 비수기 이후 전력용/UPS용을 중심으로 판매 확대

**하반기는 헝가리라인 신규 가동과 ESS 신제품 출시 예정**

- 자동차전지: 헝가리 라인 신규 가동 예정. P5 제품의 각형 자동차전지 내 매출 비중은 50% 상회 예상. 기존 고객은 물론 신규 고객 수주 가시화를 통해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 목표
- 전고체 전지는 파일럿 라인(S라인)에서 고객향 샘플 본격 생산 계획
- ESS: 에너지 밀도·안정성 강화한 신제품 출시로 전력용 중심 판매 성장 목표

**전자재료**

**점진적인 수요 회복과 고객 재고 정상화로 전분기 대비 전자재료 실적 소폭 개선**

- 반도체 소재: 전방 수요 둔화 지속되며 전분기 대비 매출 감소
- 편광필름: 주요 고객사의 재고 정상화로 수요가 회복하여 전자재료 사업부 전체 실적 개선 견인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점진적 수요 회복 속 매출액 및 수익성 개선 전망**

- OLED 소재: 주요 고객의 신규 플랫폼 진입으로 판매 확대 전망
- 반도체 소재: 점진적인 수요 회복 속 텅스텐 슬러리, 고방열 EMC 등 신제품 판매 확대
- 편광필름: 라인 가동률 상승 및 대면적 등 고부가제품 확관으로 제품 mix 개선

표1 삼성SDI 2Q23P 실적 Review

(십억원)	2Q23P	2Q22	(% YoY)	1Q23	(% QoQ)	컨센서스	(% diff.)	당사예상치	(% diff.)
매출액	5,840.6	4,740.8	23.2%	5,354.8	9.1%	5,761.5	1.4%	5,950.1	-1.8%
영업이익	450.2	429.0	4.9%	375.4	19.9%	459.6	-2.0%	442.0	1.9%
세전이익	583.2	528.8	10.3%	561.3	3.9%	604.9	-3.6%	484.6	20.4%
순이익	460.5	391.3	17.7%	439.3	4.8%	413.2	11.4%	383.1	20.2%
영업이익률(%)	7.7%	9.0%		7.0%		8.0%		7.4%	
순이익률(%)	7.9%	8.3%		8.2%		7.2%		6.4%	

자료: 삼성SDI,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삼성SDI 실적설명회 주요 Q&A

**Q1** 미주 수주 소식이 많고 capa 증설도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SCM 준비 상황은?

**A1** IRA에 따르면 북미 혹은 미국 FTA 국가에서 추출·가공했거나 북미에서 리사이클한 광물 비중이 23년 40%를 충족해야 함. 이는 27년까지 매년 10%씩 확대. 당사는 23~24년은 호주 등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리튬 사용하여 대응

25년부터 우려집단 광물 사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으로 SCM을 구축하고 있는 주요 파트너사와 협력할 계획. 북미 내 배터리 부품 생산 요건은 25년 기준 북미산 부품 비중이 60% 이상, 이후 매년 10%씩 확대됨. 당사는 극판, 셀, 모듈의 현지화는 물론 셀·모듈 부품, 분리막, 전해액 등 주요 부품에 대해 파트너사들과 현지 진출 일정 계획 세워 진행 중

**Q2** 삼성SDI의 전고체 전지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와 고객과의 협의 진행 상황은?

**A2** 하반기 고객향 샘플 생산 시작. 완성차 업체의 데모 차량에 탑재할 계획에 대해 협의 진행 중. 당사의 전고체 전지는 반고체 전해질이 아닌 완전 고체 전해질로 최고의 안전성 확보. 또한 이온 전도도가 가장 높은 황화물계 기술, 니켈 비중을 94%까지 늘린 NCA 양극재, 독자적인 실버 카본 음극 기술 등을 채택하여 업계 최고 수준 에너지밀도인 900Wh/l 목표. 고객명을 밝힐 수 없지만 27년 양산을 일정으로 한 신규 고객 과제 확보했으며 복수의 완성차 업체들과 협의 진행 중

**Q3** 전자재료 부문 신규 소재 개발 현황과 전지관련 소재 개발 계획?

**A3** 올해 하반기에 6월부터 양산 공급 시작한 신규플랫폼향 그린 호스트의 본격 생산 예정. 작년 말 양산 진입한 CIS용 컬러레지스트 블루제품에 이어 그린, 레드 제품, OLED용 편광필름, 텅스텐 슬러리 등이 양산 진입 준비중

향후 1년 내 진입을 목표로 하는 소재는 1) 효율 개선한 QD잉크 2) 고온·고습·접착력을 향상한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OCA 소재, 차세대 플랫폼향 그린 프라임 호스트, EUV 포토레지스트 등. 전지 소재는 현재 양산 중인 분리막 뿐만 아니라 전고체전지용 주요 소재 및 CNT 분산액 개발 준비중

**Q4** LFP 진출로 삼성SDI의 프리미엄 전략은 희석되는 것인지? SDI LFP의 차별화 전략은?

**A4** 과거 프리미엄 소수 모델 중심의 전기차 모델 구성 대비 최근에는 프리미엄/볼륨/엔트리 등 각 세그먼트 별로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 중. 자동차용 전지도 세그먼트 별 대응이 필요하며 점차 확대되는 볼륨/엔트리향으로 NMX, LFP 플랫폼 개발을 적극 진행 중. 프리미엄 전략 포기가 아니라 NCA, 전고체 등 프리미엄부터 볼륨/엔트리향 NMX, LFP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 확보하려는 의도

**Q5 하반기 리비안향 판매 전망은? 리비안이 LFP 배터리 채택 시 SDI 물량 감소 가능성은?**

**A5** 리비안은 2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인도량 기록. 현재 생산도 순조로워 당사 전지 판매도 계획대로 하반기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당사는 리비안 모델 중 주행거리가 긴 프리미엄 모델 차량용으로 전지 공급 중. 차기 신제품 역시 주행거리 향상 위한 에너지 밀도 증가에 중점을 두고 개발. 반면 LFP는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탑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당사 판매에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Q6 ESS시장에서 LFP 전지로 대응 계획은?**

**A6** ESS 시장 내 LFP 침투율 증가는 사실이나 당사는 삼원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 추진. 전력용 ESS 시장에서는 상업용 등 에너지밀도가 중요하고 고품질에 대한 수요가 높아 하반기 신규 제품 출시를 통해 대응할 계획. UPS 시장은 제한적 공간 내 높은 출력이 필요해 출력이 강화된 신제품 출시 예정

**Q7 하반기 전동공구 수요 전망은?**

**A7** 미국 주택시장 지표의 반등 불구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시장 회복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하반기 전동공구 수요의 의미있는 반등은 어려울 것. 부진한 환경이지만 주요 고객들과 장기공급계약을 바탕으로 하반기 공급 물량을 조기 확정함. 신규 응용처향 판매 확대를 시장 둔화 영향 최소화할 계획

**Q8 하반기 전자재료 부문 회복 전망은?**

**A8** 하반기 전자재료 부문은 1) 고객사의 재고 수준 정상화 2) 신제품 진입 효과로 실적 개선 전망. 편광필름은 고객사 재고 정상화에 더해 북미·서유럽·중국 중심 대면적 TV 수요 회복으로 1Q23을 저점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 이어질 전망. OLED 소재는 신규 출시 예정인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패널향 그린 호스트 판매 확대 계획. 반도체 소재의 경우 하반기 텅스텐 슬러리, 고방열 EMC 등 신제품 진입 통해 매출 확대 추진할 예정

**Q9 M-Mobility 수요 성장이 전망되는데 SDI의 판매 전략은?**

**A9**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M-Mobility용 LiB 시장은 E-Bike, E-Scooter 중심으로 2030년까지 CAGR 20% 성장 전망. E-Scooter 시장은 인도·인도네시아 등 동·서남아시아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CAGR 3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3년 내에 E-Bike의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 E-Bike는 컴팩트한 디자인을 위한 에너지밀도 성능과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 출력 성능이 중요. 반면 E-Scooter는 엔진 기반 스쿠터 수요를 전환하기 위해 원가경쟁력이 더 요구됨. 각 특성에 맞는 전용 cell을 개발하여 시장 대응할 계획

(자료: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 삼성SDI)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